

[1] 수도원의 당가로 선정될 사람은 공동체에서 지혜롭고, 성품이 완숙하고, 절제 있고, 많이 먹지 않고, 자만하지 않고, 부산떨지 않으며, 욕을 하지 않고, 느리지 않으며, 낭비벽이 없고, [2] 오히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 그는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 아버지처럼 해야 한다.

[3] 그는 모든 일들을 돌볼 것이나 [4] 아빠스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. [5] 명령받은 바를 지킬 것이며, [6] 형제들을 슬프게 하지 말 것이다. [7] 만일 어떤 형제가 무엇을 부당하게 청하더라도, 무시함으로써 그를 슬프게 하지 말고, 부당하게 청하는 사람에게 겸손되이 이치에 맞게 거절할 것이다.

[8] (당가는) “잘 관리하는 이는 좋은 자리를 얻는다” 하신 사도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자기 영혼을 보살필 것이다. [9] 온갖 염려를 다하여 병자들과 어린이들과 손님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줄 것이니,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의 날에 험바치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.

[10] 수도원의 모든 그릇과 전 재산을 제단(祭壇)의 축성된 그릇처럼 여겨 [11] 아무것도 소홀히 다루지 말 것이다. [12] 인색하지도 말고 수도원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도 말 것이며, 모든 것을 절도있게 그리고 아빠스의 명령에 따라 할 것이다.

[13] (당가는) 무엇보다도 겸손을 지니고, 주어야 할 물건이 없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할 것이니, [14] “좋은 말은 가장 좋은 선물보다 낫다”는 성서의 말씀대로 할 것이다. [15] 아빠스가 명령한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하며, 아빠스가 금한 것은 감히 하지 말 것이다. [16] 형제들에게 정해진 음식을 어떤 교만이나 지체함이 없이 주어 불만이 없게 할 것이니, “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에게라도 불만을 일으킨 사람”에게 어떤 값음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.

[17] 만일 공동체가 크면 그에게 보조원들을 주어 그들의 도움을 받아 평온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게 할 것이다. [18] 적당한 시간에 주어야 할 것을 주고, 청해야 할 것을 청하게 하여, [19] 아무도 하느님의 집 안에서 혼란을 느끼거나 상심하지 않게 할 것이다.